

# 광주은행 매각 늦어지나

공적자금위, 방식 결정못해 입찰안내서 발송 지연

광주은행 예비입찰 마감(20일)이 1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 공적자금관리 위원회(공지위)는 입찰안내서를 보내지 않아 매각 작업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12일 광주상공회의소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자위는 광주은행 매각 방식을 놓고 '예금보험공사가 팔도록 할지(인적 분할)', 아니면 '우리금융이 직접 팔도록 할지(물적 분할)' 고민 중이다. 공자위는 아직까지 매각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지난 달 광주은행 입찰참가 의향을 밝힌 광주은행출자자협의회, 전북은행 등 7개 투자자들에게 입찰안내서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자위는 당초 오는 20일까지 예비입찰을 마무리한 뒤 연말까지 본입찰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입찰안내서 발송이 지연되면서 예비입찰 마감 시한이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 광주상의에는 입찰안내서가 오지 않았다"며 "매각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예보와 우리금융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보는 인적 분할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우리금융과 별개로 광주·경남은행을 각각 자회사로 둔 광주은행지주와 경남은행지주 형태로 분리한 뒤 예보가 우리금융 지분을(56.97%)대로 직접 매각하는 방안이다. 이때 매각 물량은 최소 입찰 규모인 '50%+1주 이상'에서 예보 지분을 56.97%까지 한다.

반면 우리금융이 선호하는 방식은 물적 분할이다. 이 때 매각 주체는 우리금융으로, 지분은 95% 이상 팔아야 한다. 지주회사법상 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인적 분할은 예보의 지분을 범위 내에서 팔면 되기 때문에 물적 분할보다 인수 부담이 적어 더 많은 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반면 물적 분할은 절차가 단순해 민영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광주은행 예보는 최종 결론은 못 냈지만 경우 일단 예비입찰 안내서를 보낸 뒤 예비입찰 실시 이후 매각 방식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예비입찰서 선정 일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입찰참가 의향을 밝힌 투자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입찰 안내서에 따라 몇 퍼센트의 지분을 인수할 것인지, 인수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육기자 jwpark@yna.co.kr



**光銀 북항지점 개점**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지난 10일 전남 목포시 산정동 북항에서 정종득 목포시장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 북항지점 개점식 행사를 가졌다. 북항지점은 광주은행의 140번째 지점으로 북항 인근에 위치한 대양산단과 산진산단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북항 주민들에게 금융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광주은행 제공>

## 光銀 임원인사…민영화 대비 조직 안정화 초점

광주은행이 민영화를 앞두고 조직 안정화와 영업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명단 16면)

12일 광주은행은 기업개선회생본부와 기업회생부 신설, 국제금융부 승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본부 조직개편과 임원과 부점장급 승격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기업회생신청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회생부를 신설했으며, 기업회생부와 기존의 기업개선부를 관리하는 기업회생부를 설치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국제 금융시장에서 효율적인 외화조달 등 국제금융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자금시장부 트레이딩팀을

국제금융부로 승격시켰다.

인사는 사업본부장의 경우 조영현 개인고객본부장과 변정섭 경영기획본부장이 각각 부행장으로 승진했고, 기업고객본부장인 장찬주 이사대우가 부행장보로 올라섰다.

광주은행은 전남지역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짚고 유능한 지역 연고 직원들을 신규 발탁했다. /이은미기자 emlee@

## 북구 대형마트 건축부지 매각공고

### "대기업 우회입점 현실화" 우려

광주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부지에 대한 매각공고가 나오면서 대기업 우회입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STS 도시개발은 지난 10일 지역 신문에 광주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부지 9855㎡ 대한 매각을 공고했다.

매각공고는 행정소송과 지역 종소상인들과 1년여의 마찰 끝에 건축허가를 얻는 샹젤리제 코리아에서 STS 도시개발로 건축주가 변경신고된 4일 만에 이뤄졌다.

STS 도시개발은 공고에서 입찰참가자 조건으로 현재 대형마트를 운영중인 사람이나 향후 대형마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밝혔다.

특히 참가자격을 직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직전 3년간 매출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한 대형 유통업체가 아니면 사실상 적격자가 나타나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구대형마트·SSM입점저지대책위 등 지역 종소상인들은 이변에 틈을 통해 소형법인인 샹젤리제 코리아가 허가권을 얻고 건축, 운영과정에서 주체가 바뀌는 대기업 우회 입점의혹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STS관계자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각공고를 냈다"며 "의혹대로라면 계약이 있다면 입찰 공고를 냈겠느냐"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

##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 사상 최대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반기 들어 낙달 연속 80%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10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13개 손해보험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5%를 기록했다.

13개 손보사 중 무려 8개 사의 손해율이 90%를 넘었으며, 일부 사는 손해율이 100%에 육박했다.

손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로,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가 난다.

8월 81.6%, 9월 87.8%, 10월 82.5%에

이어 넌달 연속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자 손보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차보험 손해율이 4개월 연속 80%를 넘은 것은 199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4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보험 적자는 8576억원으로, 9월 한 달만도 2300억원에 달했다. 손해율이 9월에 배금기는 11월을 합치면 차보험 적자는 1조원을 넘는다.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인 것은 경기회복으로 교외 나들이 차량과 화물 수송이 증가해 교통사고가 늘어난데다 보험료 할증기준 변경으로 사고 1건당 지급하는 보험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 光기술원 신기술창업센터 건립 순조

내년 3월 완공을 앞둔 한국광기술원 신기술창업센터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조만간 입주자를 모집한다.

12일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 내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선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부터 녹색연구기관 특화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지원사업으로 확정돼 추진 중인 신기술창업센터의 건설 공정이 순조로워 내년 3월 새 입주자를 맞는다. (조감도)

총사업비 36억원이 투입된 신기술창업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813㎡ 규모이며 16개 보육실(1921㎡)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광기술원의 보육시설은 26개실로 늘고, 입주기업에는 광기술원의



총장비와 인프라·인력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주어진다.

광기술원 신기술창업센터는 내년 1월 입주공고를 내고 공간업에 참여할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부정육기자 jwpark@kwangju.co.kr

## 음료값 내년초 출출이 인상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등 음료 가격이 내년 초 출출이 오를 전망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카콜라음료와 롯데칠성음료 등 음료업체들은 최근 음식점이나 일반 슈퍼마켓 공급가격을 올린 데 이어 내년 초부터 대형마트 판매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지난 1일부터 음식점에 공급하는 코카콜라, 키나이다, DK, 헨터 등 1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3~4% 인상했다. 롯데칠성도 지난 10월 말 슈퍼마켓에 공급하는 웹시콜라 등 탄산음료와 멜론트, 트로피카나 등 10여 개 품목 가격을 평균 7% 가량 올렸다. 대형마트 공급 가격도 조만간 인상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자 손보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차보험 손해율이 4개월 연속 80%를 넘은 것은 199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4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보험 적자는 8576억원으로, 9월 한 달만도 2300억원에 달했다. 손해율이 9월에 배금기는 11월을 합치면 차보험 적자는 1조원을 넘는다.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인 것은 경기회복으로 교외 나들이 차량과 화물 수송이 증가해 교통사고가 늘어난데다 보험료 할증기준 변경으로 사고 1건당 지급하는 보험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 2000선도 두드리면 열릴 것

결국 지수는 2000선 돌파를 계속 시도할 것이고 머지않은 장래에 성공할 것이다. 국내외 유동성의 힘이 코스피 천 단위 숫자를 바꾸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의 뮤추얼펀드 동향을 보면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지속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내년 투자환경은 채권보다 주식에 더 유리해 보인다. 국내 자금 이동의 방향 역시 채권에서 주식 쪽으로 돌려져 있다고 판단된다.

2005년 개인들의 간접투자 자금을 담았던 그릇이 펀드였다면 2011년에는 렙어카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진진하게 주목해볼 부분은 은행권의 행보이다. 당장 2008년 말 유입된 약 25조원 규모의 특판 예금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냥 두어도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고, 은행권에서 이 자금을 재유치하기 위해서도 주식과 연계된 상품을 내놓아야 하니 아래저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코스피 지수 2000선 돌파의 장애물은 심리적 부담이다. 많이 올랐다는 심리적 부담은 펀드 환매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기관 운용의 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지수 등락이 지속되면서 상당부분 환매가 진행됨에 따라 지수 2000 부근에서의 환매 규모는 전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펀드 환매는 지수를 크게 훼손하기보다는 종목 차별화로 그 영향력을 과시할 것이다.

한편, 오바마와 공화당이 합의한 감세안 연장이 민주당의 반발로 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도 장애물이다.

하지만 이번 주에 미국 상원을 필두로 하여 부시의 감세안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주지해야 할 점은 이번 감세안이 며칠 전 공화당과 오바마가 합의한 사항에 보너스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회의 승인을 위해서 기존 감세안+α 이외에 추가 보너스까지 가세하여 이번 감세 연장은 사실상의 재정정책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2011년 초 기존 부양책 만료에 따른 경기하강 우려를 상당부분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긴축 우려도 시장의 장애물이다. 하지만 통화 긴축과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방침에 따라 급격한 긴축 가능성은 작았는데, 지급준비율 인상 정도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장세는 정책에 따라 지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상승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확산인 만큼 IT나 은행, 증권 등 금융주의 선전이 기대된다.

아울러 삼성그룹주나 기관 선호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개입 차원에서 접근도 가능할 전망인데, 최근 자문사로의 자금 유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수 상승에도 종목 차별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종목 접근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특허번호 제 10-0488090호 | 실용신안등록 제 20-0374637호 | 실용신안등록 제 20-0355402호 | 실용신안등록 제 20-0333037호

## 가맹점 모집

★점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  
전두부 자동 제조기 하나면 OK!  
※ 콩 관련 업종(기존식당) 재창업 및 업종 변경

전(全)두부란?

기존 두부와 전혀 다른 풍미 고소한 맛과 푸딩처럼 부드러우며 이미 선진국에서 장수음식으로 즐겨 먹고 있는 두부입니다.

전두부의 영양 – 전두부와 일반두부의 주요 성분 비교(100g당 함량)

전 두부 : 약 3400mg(약 11%)	식이섬유
일반두부 : 약 300mg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므로 성인병 예방, 변비개선 및 다이어트 효과
전 두부 : 약 27.63mg(약 2700%)	사포닌
일반두부 : 약 0.1mg	대부의 사포닌은 플라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중 플라스테롤을 저하시키며 심장병, 당뇨증 예방에 효과
전 두부 : 약 29.95mg(약 3000%)	레시틴
일반두부 : 대량	대부에 들어 들어 있는 단백질의 일정으로 압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우울증, 골다공증 등의 예방에 효과
전 두부 : 약 29.17mg(약 3000%)	이소플라본
일반두부 : 약 9.3mg	식물의 배고에서 분리한 흡수 지방질 이 성분은 노력을 강화하게 만들어주며 치매 예방에 효과적임

\* 100% 국내산 콩만을 고집하는 명품 두부

기능성 두부(녹차두부, 카레두부, 흑